

# 생사람 잡은 경찰 시민이 누명 벗겼다

## 억울한 옥살이 30대 새 목격자 찾아 항소심 무죄

두 자녀를 둔 30대 가장이 경찰 수사 미흡 때문에 동료 직원들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풀려났다. 특히 이 30대 가장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은 수사기관이 아닌 한 개인의 노력 끝에 이뤄져 관심을 끌고 있다.

24일 오전 9시30분 광주고등법원 301호 법정. 직장 동료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정모(32)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정씨의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는 이날 정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만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정씨의 주된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이 경찰서와 법정에서 각각 엇갈려 신뢰성이 없다”면서 “아무리 만취해도 자기 동료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정씨가 동료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것은 확실치 않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정모(왼쪽)씨가 자신의 혐의를 벗겨준 원리수씨와 함께 24일 오전 광주지법을 나서며 활짝 웃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5일 새벽 4시께 목포역 주변 유흥가에서 직장 동료인 유모(38·사망)씨와 함께 술에 취한 채 길을 걷다 지나던 A(여·35)씨와 A씨의 남자친구와 시비 끝에 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씨의 동료인 유씨가 누군가에 의해 폭행당해 숨졌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였던 A씨와 A씨의 남자친구 등의 진술에 의존해 정씨가 싸움 과정에서 유씨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결국 이 같은 증언과 경찰 조사 끝에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숨진 동료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살인자로 낙인찍힌 데다 구속기간이 길어지면서 정씨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거래처가 끊어지는 등 위기를 맞았다.

이때 정씨 가족들은 TV 프로그램 통해 사법기관의 부당함을 파헤쳐 온 인천에 있는 ‘원리수 형사문제 연구소’를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직 국내에 사립탐정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사립탐정 역할을 하고 있는 원씨는 지난 2월부터 1개월동안 목포 사건 현장을 누볐고, 목격자 6명을 찾아내는 등 새 증인 등을 확보하면서 정씨의 무죄를 이끌어냈다.

특히 새로운 증인 중 2명의 윤리수가 법정에 서길 꺼렸지만, 재판장이 직접 윤리수를 찾아 현장 증언을 들은 등 재판부의 진실 파헤치기도 큰 힘이 됐다.

원리수씨는 “지난 1997년 2월 19일 일반적인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억울하게 뺑소니범으로 몰려 1년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된 뒤 경찰과 검찰, 법원 등의 잘못된 점을 책으로 쓰고 연구소를 차리게 됐다”면서 “지금까지 정씨 사건 이외에도 33건의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줬다”고 말했다.



## 장애인과 함께 한 음악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가 주최한 ‘장애인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가 24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공원에서 열렸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복지 선진화를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50여명의 장애인들이 참석해 대학생들의 연주를 감상했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가 주최한 ‘장애인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가 24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공원에서 열렸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복지 선진화를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50여명의 장애인들이 참석해 대학생들의 연주를 감상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마구잡이 전선 절도

최근 고유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으로 이동 통신사에서 사용하는 낙뢰 방지용 전선을 비롯한 전력 공급용 전선 등의 도난이 잇따라 감전사고 및 통신장애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과 이동 통신사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모 이동통신사 기지국에서 낙뢰방지용 접지선 30m가 도난당했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광산구 임곡동 모 이동통신사 기지국에서 접지선 30m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접지선은 낙뢰로 인한 순간적인 높은 전압이 장비를 파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낙뢰를 땅으로 유도하기

위한 구리 전선이다. 접지선 절도는 이 기지국에서만 최근 들어 4차례나 도난당하는 등 피해액은 4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접지선 없이 낙뢰를 맞을 경우 기지국 인근의 휴대전화 통신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보다 더 큰 피해도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해에 비해 구리값이 20~30%가량 오른 1m당 9천800원에 거래되고 있어 이 같은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해남이나 담양·함평 등 전남 지역에서도 접지선과 농업용 전선 절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류가 흐르는 전력 공급용 구리 전선까지 마

## 구리값 급등에 잇단 도난

### 감전 사고·통신 장애 우려

구리값이 급등하고 있어 대형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20일께 해남군 황산면 인근에 설치돼 있던 농업용 전선 300m가 도난당하는 등 들어 70여 차례에 걸쳐 피해가 발생해 피해액만 2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 담양이나 함평 등 광주 인근에서도 농업용 전선 절도가 끊이지 않고 있어 피해액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전선 안에 구리가 들어있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정확히 알고 절도하는 것을 보면 전문가들의 소행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 황당한 배수관 절도

광주시 남구 임암동에 위치한 김치종합센터의 지하에 시설된 배수관을 통째로 도난당한 황당한 절도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관리주체인 광주시는 도난 시점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김치종합센터 지하 2층에 설치돼있던 동파이프 배수관(시가 4천만원 상당) 3t 가량이 도난당한 사실을 지난 15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도난당한 배수관은 지름 100mm와 80mm 크기로 이뤄진 냉온수용 파이프로 수백m의 길이에 무게만 3t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치센터는 광주시 남구청이 지난 2004년 약 8만㎡ 부지에 196억원을 들여 착공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광주시가 지난 5월 인수했다. 김치센터는 오는 10월부터 재시공에 들어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시설 내에는 주·야간 근무자가 한명 뿐이었다.

김치센터가 가동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광주시는 도난 시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남구청으로부터 센터를 인수한 5월 13일 이후부터 절도 사실을 확인한 이달 7월 15일 사이에 도난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마디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경찰은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부인이나 관련자들의 범행으로 보고 있다. 지하 2층 기계실비실이 외부와 차단돼 있고, 김치센터도 인근에 마을 하나가 있을 뿐 인적이 드문 곳이기 때문이다.

한편,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김치 센터를 테마로 건립하는 김치종합센터는 현재 75%가량 공사가 진행된 상태다. 센터에는 김치 생산공장과 김치 박물관, 연구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 나원침 (7565) 김장동



다 좋은 건국·산업지대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저렴 및 상담만행**

▶ 사물포시 : 02) 3445-0943  
▶ 나주광원 : 061) 337-0571

## 무너진 지리산 돌탑 억측 난무

○오랜 세월동안 지리산 등산객들이 소원을 빌며 돌을 하나 둘 쌓아 만든 돌탑 2개가 최근 무너져 내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등산객들 사이에서 억측이 난무.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사무소는 24일 반야봉(해발 1732m)과 만복대(해발 1천430m)에 있던 높이 1m60cm~3m, 직경 1.5m~2.5m의 돌탑 2개가 무너졌다고 발표했다.

○등산객들이 쌓기 시작한 수십년을 됐을 돌탑이 무너진 데 대해 현지에서는 지역 유력인사 개입설 등 온갖 추측이 횡행.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돌탑이 무너진 이유를 밝혀달라는 등산객들의 민원이 제기됐다”며 “오래된 돌탑이 없어지다 보니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나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 아파트 차명 등기 수습액 대출

## 광주경찰청, 10명 적발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타인의 명의로 아파트 등기를 마친 뒤 이를 담보로 수습액을 대출받아 최고(35)씨 등 8명을 부동산실권리자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또 고액대출에 차명아파트란 사실

을 알리지 않고 전세 계약을 도운 부동산 중개업자 장모(30)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분양업자인 최씨는 지난 2006년 말께 준공된 광주시 서구 마북동 모 아파트 시행사로 등으로부터 미분양 물량 13채를 확보, 판매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자 금융기관에서 25억여원을 대출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 등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출광고를 보내고 연락을 취한 13명에게 1인당 100만~15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등기이전을 마친 뒤 이 아파트를 담보로 1채당 1억2천만~1억6천여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씨 일당은 대출받은 돈으로 아파트 대금지급을 하고도 이윤이 남지 않자 공인중개사 장씨를 통해 아파트 1채당 3천만~6천만원의 월값에 전세를 내주고 7억3천만원의 전세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조이 여행사**

여행 전문 여행사

214-0022

**일본 - 10월 10일**

대형여행객  
거북과 함께 여행! 당일출발 7박8일...  
일본여행객 1인당 439,000  
일본여행객 2인당 535,000  
일본여행객 3인당 699,000  
일본여행객 4인당 859,000  
일본여행객 5인당 999,000

**일본 대박도 3일 1박여행객 399,000**

**한국 - 4월 10일**

▶ 장사/장거계/원거계 4일 649,000  
▶ 장사/장거계/원거계 5일 679,000  
▶ 삼일/북두산 4일 949,000  
▶ 삼일/북두산/단풍 5일 999,000

**대한민국 - 8월 10일**

▶ 삼해/함주/소주 4일 519,000  
▶ 삼해/함주(산할복)/함주 4일 719,000  
▶ 삼해/함주(산할복)/함주 5일 739,000  
▶ 삼해/함주(산할복)/함주 5일 769,000

**일본 배낭여행 상담 가능**

▶ 홍콩/마카오/심천 4일 829,000  
▶ 홍콩/심천/다즈니랜드 4일 829,000  
▶ 홍콩/마카오/심천 5일 879,000

**한국 - 8월 10일**

▶ 양쪽/피타이 5일 539,000  
▶ 푸 북 5일 699,000  
▶ 마닐라/박실한/다가마이 4일 699,000  
▶ 마닐라/모타카이 5일 899,000  
▶ 마닐라/모타카이 5일 749,000  
▶ 상해/하얼빈/포호바루 5일 999,000

**국내 관광 - 7월 10일**

▶ 제주도/북산도 2박3일 170,000  
▶ 제주도/와도 2박3일 140,000  
▶ 제주도/해도 2박3일 214,000  
▶ 울릉도 2박3일 303,000

**일본여행 1박2일**

▶ 제주 한라산등반 2일 99,000  
▶ 제주 투어 1박2일 99,000  
▶ 제주도 참가투어 패키지 3일 289,000

**▶ 탐방여행권 ▶ 친정버스 ▶**

기름 여행비자문의  
망명여행전화 233-5900